# 6월 모평만큼 어려웠다… 영어 난이도 조절에 실패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 실시**

## 국·수·영 작년 수능보다 난이도↑ 수학 가형·나형 체감 어려웠을 듯 절대평가 영어 1등급 비율 불규칙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열린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여고에서 학생이 시험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치러진 9월 모의고사 국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모의고사보다는 쉬웠다.

국어 영역 독서파트가 가장 어려웠지만, 이외 문학, 화법과 작문, 문법은 모두 쉽게 출제됐다. 특히 어려웠던 문항은 독서파트 과학기술관련 32번(3점) 주사 터널링 현미경 문항, 경제 24번(3점) 채권의 신용평가 문제가 꼽혔다.

지난 6월 모의고사 표준점수 최고점은 140점, 1등급컷은 91점, 만점자비율은 025%였고, 지난해 수능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 134점, 1등급 컷 94점, 만점자비율은 0.61%였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은 이번 9월 모의고사 수준의 난이도가 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종로학원하늘교육 국어영역 장석우 강사는 "6월 모의고사가 전년 수능에 비해 어렵게 출제된 점을 감안한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다"면서 "본수능에서는 이번 9월 수능 수준정도로 난이도가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상위권의 경우 변별력이 있는 독서파트에 집중하고, 중위권은 쉽게 출제되 틀리지 않아야 하는 문법파트 등에서 틀리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

EBS 연계율의 경우 특히 문학파트 연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EBS 교재에 수록된 대표 문학작품에 대한 학습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학 가형·나형 모두 어려웠다**

수학은 가형과 나형 모두 지난 6월 모의고사 수준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과 수험생이 주로 치르는 수학가형은 평소 쉽게 출제되는 확률과 통계 등도 어렵게 출제된 경우가 나타나 실제 수능 난이도 또한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상위권 문제는 다소 쉽게 출제돼 1등급커트라인이 6월 모의고사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난도 문항은 21번(적분, 4점), 29번(공간벡터, 4점), 30번(미분, 4점)으로 모두 6월모의고사보다 쉽게 출제됐다. 이 가운데 30번 문항이 가장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문과 학생이 보는 수학나형의 경우 6월 모의고사 수준과 비슷하게 어려웠고 체감난이도도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과 최고 난이도 문제로 평가되는 30번(미분, 4점)은 6월 모의고사 수준 이상으로 어려워 최상위권 변별력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 21번(적분, 4점), 29번(수열, 4점) 문제는 6월과 비슷하게 출제됐지만, 풀이과정 실수 가능성이 있어 6월보다 쉽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손영표 수학 강사는 "수학 가형과 나형 모두 어렵게 출제됐던 지난 6월 모의고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면서 "나형을 치르는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 중하위권으로 갈수록 6월 모의고사보다 어려웠다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이과 수학가형의 경우는 6월과 비슷한 정도로 어려웠지만 킬러문항이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돼 1등급컷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은 "수학가형은 29번(기하벡터) 문항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았고, 30번 문항도 6월 모의고사보다 다소 쉬웠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3점과 4점 배점 문항에서 까다로운 계산 문항이나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어 중위권 학생의 체감난이도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절대평가 영어 '어려웠다' vs '쉬웠다'**

지난해부터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영역에 대해 학원가에서는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다는 분석이 많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게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어려웠다'와 '쉬웠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다만 지난 6월 모의고사 실채점 결과 어려웠던 것으로 나와 지난해보다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첫 절대평가 수능의 경우 1등급 비율이 10%로 쉬웠지만, 올해는 지난 6월 4.2%로 나와 불수능이 추정된 바 있다.

특히 영어 1등급자 비율은 지난해 6월 모의고사(8.1%), 9월 모의고사(5.4%), 수능(10%), 올해 6월 모의고사(4.2%)로 난이도가 매우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고난도 문항은 39번(문단속 문장끼워넣기 문항, 3점)이 꼽혔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이호열 영어 강사는 "평소 출제패턴에서 벗어난 유형의 문제가 등장하고 EBS 체감 연계율도 크게 떨어져 수험생 체감난이도가 높아졌을 것"이라며 "과거 상대평가 방식에서 90점 이상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학생은 1등급 진입이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약간 쉽게 출제됐다고 분석하면서도, 지난 6월 시험이 어려워 이번 시험의 체감 난이도는 쉬웠을 것으로 해석했다. 김병진 소장은 "작년 수능보다 약간 어렵게 출제됐고, 올해 6월 모의고사보다는 약간 쉬웠다"며 "학생들이 6월 모의고사를 겪은 후 영어 학습에 집중해 체감난이도는 쉬웠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영어 고난도 문항으로 34번, 39번, 42번을 꼽았다.

반면 메가스터디교육은 "영어영역은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지문의 소재와 EBS 연계 비율, 문제유형 등은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동일했다"는 총평을 내놨다. 메가스터디교육 남윤곤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이나 논리 추론 문항의 경우 지문의 길이가 약간 짧아져 중상위권 학생들은 무난히 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문의 소재가 철학, 심리, 교육 등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중하위권 학생들은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푸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중앙대 허강성 교수**

## 세계3대 인명사전 등재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최근 경영학부 허강성 교수(49·사진)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고, 알버트 넬슨 평생 공로상(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마르퀴즈 후즈 후는 미국인명정보기관(ABI),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힌다.

# 대학들, '강사법' 개선하려면 매년 3000억 필요 주장

**대교협·전문대교협, 정부에 지원 요청**

**"재정지원 없인 처우·교육 여건 악화"**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용우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왼쪽)과 학교, 강사 대표들이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시간강사의 교원 신분 부여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강사법 개선안에 대해 대학들이 정부 지원 없이는 시행이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이하 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내고 정부가 강사 인건비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강사제도 개선안 기본 취지는 이해하고,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면서도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이번 개선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그동안 등록금은 동결하면서 교내장학금 확충에 나섰고, 올해부터는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하는 등 수입은 줄고 지출구조만 확대돼 이미 대학들의 재정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행 강사료를 유지하더라도 개선안을 실행하려면 현행 강사료를 유지해도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된다"며 "정부의 실질적 재정지원이 없으면 강사 처우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의 교육 여건 악화와 고등교육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용수 기자

**세종대 세종연구원**

## 정주용 대표 초청포럼 개최

세종대학교는 세종연구원이 오는 13일 오전 7시30분 서울 세종호텔 3층에서 정주용 비전크리에이터 대표(사진)를 초청해 '4차산업을 리딩하는 데이터 제국 중국'이라는 주제로 세종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정주용 대표는 중국 장강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신영증권과 IBK투자증권, SV인베스트먼트 등을 거쳐 SK E&S에서 중국 투자 담당자로 일했다. /한용수 기자

# 삼성 하반기 신입공채 스타트… 1만명 채용

**삼성전자 DS부문 4500명 뽑아**

**직무적성검사는 내달 21일 시행**

삼성그룹의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3급) 공채 서류접수가 5일 전자계열 5개사를 시작으로 시작됐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초 향후 3년간 180조원 투자와 함께 4만명 규모 인력 채용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올해 채용 규모에 관심이 집중됐다. 올 하반기엔 삼성전자 DS부문에서만 4500명 가량 채용해 총 1만명 안팎의 신규채용이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4000여명을 뽑았다.

5일 인크루트와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등 전자계열 5개사 서류접수가 시작됐고, 6일부터는 금융계열(삼성카드·삼성증권·삼성생명·삼성자산운용·삼성화재해상보험) 서류접수가 진행된다. 호텔신라·제일기획·삼성물산 등 기타 계열은 7일부터 지원서를 받는다. 접수 마감은 모두 14일 17시까지다.

신규 채용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바이오 △5세대(5G) 이동통신 △전장부품 △인공지능(AI) 등 투자를 늘린 신사업 분야에서 신규채용이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그룹은 매년 채용전형상 크고 작은 변화를 이어왔다. 지난해 미래전략실 해체 후 계열사별 순차채용을 시작한 것에 이어, 상반기에는 직무적성검사 시험 시간도 기존보다 25분 줄인 115분으로 바뀌었다. /한용수 기자

〈2018 하반기 삼성그룹 3급 신입사원 계열사 접수일정〉

| 구분 | 9/5(수)~ | 9/6(목)~ | 9/7(금)~ |
|---|---|---|---|
| 계열사 | 삼성전자 | 삼성카드 | 호텔신라 |
| | 삼성전기 | 삼성증권 | 제일기획 |
| | 삼성SDS | 삼성화재 해상보험 | 삼성 엔지니어링 |
| | 삼성SDI | 삼성생명 | 삼성물산 |
| | 삼성 디스플레이 | 삼성 자산운용 | SAMSUNG |

일정은 기업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서류접수 마감: 9/14(금) 오후 5시.
*직무적성 검사: 10/21(일). /자료=인크루트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大' 전남대 등 5개 대학 선정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경일대, 전남대, 목포대 등 5개 대학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으로 선정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대학과 중소·중견기업이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현장실무능력을 가르치는 학과다.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과 기업 프로젝트 과제 수행이 가능한 다학제적 창의융합교육센터 구축 등을 지원한다. 학생들은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과 실무 중심의 기업현장 교육을 결합한 3년 6학기제 교육을 받는다. /한용수 기자